

#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 [제2호](2013.10)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 9월 15일, 오픈하우스 개최... 뜻깊은 사진 60여장 전시해

신심향상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진여원은 상삼배 예행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 서울포교소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된 오픈하우스는 사진 전시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날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로 보전 바깥 뜰에서는 점심공양도 이루어졌다. 신도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진여원은 내년 3월 상삼배를 향한 마음자세를 진지하게 다졌다.



## 창원포교소, 개소식에 100 여명 참석

9월 29일 창원포교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11시 개소식에서는 '정화의 의식'에 이어, '오곡공양'이 참석자 모두에 의해 엄숙하게 이루어졌다. 식전에는 현지 교도 60여명과 부산지역 교도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창원포교소는 기존 마산포교소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90-23 동남프라자 빌딩 9층에 위치하여 경남서부지역 불자들의 신심향상 및 구제의 도량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진은 4면에)

사진전에는 당일 법요에 참좌한 80여명 중 60여명의 교도들이 참관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사진을 보며, 감동을 느꼈다.



신당동에서 참좌한 이충렬 교도는 “정말 좋은 사진들이 나열되었네요. 나날이 발전하는 신노엔의 모습은 마치 제 마음의 발전과정과 같고, 밝은 미래를 예견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께 기도를 더 깊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며 사진전에 감사의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진 강주녕, 글

[kht707@hanmail.net](mailto:kht707@hanmail.net)>

## [인터뷰] 오픈하우스 사진전시에 전념한...전선희 사무국원

☎ 이번 전시회는 무엇을 위주로 준비했습니까?

☞ 테마는 4가지 즉 ‘해외교류’, ‘해외법요’, ‘사회공헌’, ‘진여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시한 사진매수는 54매 이었는데 싱가포르 상참배시에 전시되었던 것들과, 한국 사무국에 소장되어 있는 것에서 선별하였습니다.

☎ 이번에 전달하고자 한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즉 ‘진여원이란 어떤 곳인가’, ‘아! 다시 오고 싶어지는 곳’ 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교도님들에게는 개조, 영조, 교도인 및 신도인님으로부터 흐르는 큰 힘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비디오도 준비했었죠?

☞ 네. 2010년 한수행때의 내용으로 테마는 ‘신노엔이란?’ 입니다. 15분짜리 영상으로서 진여원의 역사, 해외교류 설명이 주된 내용이죠.

☎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 사진 설명, 제목을 붙이지 못한 것, 진여원의 삼륜신 중 부동명왕 사진을 전시하지 못한 것, 비디오 음성이 좀 울리어 선명하지 못한 것 등 개선 필요성을 느꼈어요.

☎ 2차는 언제하고, 당부사항은?

☞ 11월 예정인데, 사진을 일부 바꾸고, 비디오 화질, 음성도 선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부회에서도 홍보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담] 사업실패 후 귀원 개시....항상 큰 힘을 느끼고...  
불같은 성격이 배려의 마음으로 바뀐 박영애 교도**

9년 전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진여원에는 일반사찰과 달리 ‘점심’(接心)이라는 것이 있어 꼭 받아보라는 인도자의 권유를 받고는 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원해보니 불상도 없고, 그림 같은 레리프의 열반상만 있으며, 법당도 너무 협소하여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받기 위해서는 3번 귀원해야 한다가에 회수를 채웠습니다. 점 볼 때와 달리 점심을 받을 때에는 생년월일도 말하지 않았는데, 받아보니 신기하기도 해 일단 ‘다녀보자’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때 ‘한수행’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께서 적어도 한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는 인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총각인 큰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한수행 한달 후 며느리 될 사람이 생겨 그 해에 결혼하였고 떡두꺼비같은 손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진여원에 올 때가 되면 친목회 등 다른 일정과 겹치는 겁니다. 상구보리를 통해 일단 개인 일정을 무시하고 귀원했는데,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오히려 저의 스케줄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3년 전에는 큰 아들을 데리고 귀원했는데, 포교소의 분위기 등을 보고는 이단(?)이 아닌가 하며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잘못된 인식을 무리한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기 보다는 스스로 느끼도

록 하기 위해 ‘너는 큰 절인 조계사에 다녀보거라. 나는 진여원에 계속 다닐테니..’ 하였고, 그 후 각각 절을 달리하여 다녔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작년부터 아들이 이곳으로 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힘들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여원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고,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는 않지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희 예자 참석을 위해 작년 중합도량인 응현원에 갔을 때입니다만, 저는 총본부와 응현원의 융합을 보고는 포교소의 협소함 등에 대해 가졌던 편협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천주교를 50년간이나 다닌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절에 다니고 있는 저를 위해 오히려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친구는 저의 변모한 모습을 보며, 진여원의 덕분이라고 느끼고는 3년전에 입신한 바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성격이 불과 같았으나, 지금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자식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진솔하게 스스로를 닦아가고 있으며, 진여원의 훌륭한 가르침을 계속 전해 나가겠습니다.(박영애, 8월 발표내용 요약)



**<청파동 칼럼> 사마타수행, 위빠사나수행과 접심수행...유사점과 차이점**

**2013년 이사회 개최...**

‘접심수행’은 기도, 명상과 비슷한 것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심경에 일여하고자 행하는 기도 중에 받는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보리향상해 나가는 진여원의 독자적인 수행입니다.

접심수행의 기원은 석존이 왕자였던 어린 시절 농경제 때 파헤쳐진 땅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서로 먹고 먹혀야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깊은 사유에 들어간 것에 연원합니다.

접심수행의 기원은 석존이 왕자였던 어린 시절 농경제 때 파헤쳐진 땅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서로 먹고 먹혀야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깊은 사유에 들어간 것에 연원합니다.

접심수행의 기원은 석존이 왕자였던 어린 시절 농경제 때 파헤쳐진 땅에서 나온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서로 먹고 먹혀야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깊은 사유에 들어간 것에 연원합니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여신 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마타수행’은 고요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명상하며, 번뇌를 단절하도록 마음을 비우고,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 행복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반면 ‘위빠사나 수행’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선정 상태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을 꿰뚫어보고 관조하여, 몸과 마음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인 것을 바르게 알고, 깊은 마음 집중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번뇌를 소멸, 해탈을 얻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불자들이 이런 어려운 수행을 통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여원의 접심수행과 예자·영능 수행은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수행’을 통합한 현대적인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접심을 통해 수행, 정진, 화두명상, 보리향상의 실천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인도받아,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空)의 심경을 깨달아가며, 대승이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업을 소멸, 정화해 깨달음의 경지에

9월 11일 응현원 국제부에서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국제부장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진여원 한국 사무국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창원포교소 개소식 준비 보고에 이어, 이사회 및 감사운영 규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창원포교소 개소식 사진>**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듣고,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대반열반 경의 신묘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상주하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바로 접심수행과 예자수행에 있음을 안다면, 현세에서의 즉신성불, 즉 일상생활 속에서 상락아정의 극락정토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박노경)

<칼럼은 진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